

전통주 산업의 동향과 전망

김창호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2018년 2월부터 식품산업 동향 및 정보 분석결과를 매월 이메일을 통해 '식품외식정보 웹진'으로 배포하고 있음.

식품외식정보 웹진 10호에서는 국내 주류산업 중 최근 성장하고 있는 전통주 산업 및 시장 동향과 전통주류의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전통주 산업에서 대두되는 이슈와 소비 트렌드를 정리하여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국내 주류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감소 추세로, 국내 음식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

-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약 9조 9,700억 원으로 국내 음식료 제조업 시장규모의 약 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 국내 음식료 제조업 규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8% 증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5%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추세임.
 - ▶ 반면, 국내 주류산업 규모(출고액 기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함.
 - ▶ 음식료 제조업 대비 주류산업 비중은 2012년 11.2%에서 2021년 7.8%로 음식료 제조업의 성장세에 주류산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임.

국내 음식료 제조업과 주류산업의 규모와 성장률

단위: 조원, %

연도	시장규모		음식료 제조업 대비 주류산업 비중	음식료 제조업 성장률	주류산업 성장률	경제성장률
	음식료 제조업	주류산업				
2012	75.1	8.4	11.2	-	-	-
2013	77.3	8.8	11.4	2.9	5.0	3.2
2014	79.9	9.1	11.4	3.4	3.6	3.2
2015	83.9	9.4	11.2	5.0	2.6	2.8
2016	86.6	9.3	10.7	3.2	-0.7	2.9
2017	89.7	9.2	10.3	3.6	-0.6	3.2
2018	92.0	9.0	9.8	2.6	-2.2	2.9
2019	96.2	8.9	9.3	4.6	-1.1	2.2
2020	102.2	8.8	8.6	6.9	-1.6	-0.7
2021	113.1	8.8	7.8	10.0	0.4	4.1
2022	-	9.97	-	-	-	-
연평균 증가율(%) ('12~'15)	3.8	3.8	-	-	-	-
연평균 증가율(%) ('16~'21)	5.5	-1.1	-	-	-	-

주: 1) 주류산업 출고금액에는 주정(타주류 및 식품 제조원료)이 포함된 값이며,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을 의미함.

2) 2022년 기준 주류산업 외 음식료 제조업 및 각 성장률 자료는 아직 갱신되지 않음.

자료: 음식료 제조업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주류산업 - 국세청, 「국세통계」(주세, 출고금액);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국민계정」.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류산업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2년을 기점으로 모든 주종의 출고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

- 국내 주류시장은 오랜 기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출고액 기준으로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체 시장의 85.7%를 차지함.
 - ▶ 2022년 출고액 기준 주종별 비중은 맥주(43.7%), 희석식 소주(42.0%), 탁주(5.5%), 기타주류(3.2%), 증류식 소주(1.5%), 과일주(1.3%), 청주(1.3%), 약주(0.7%), 리큐르(0.4%), 위스키(0.2%) 등의 순임.
- 전체 주류시장은 2022년 기준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종의 출고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에 다소 주춤했던 출고액이 2022년에 이르러 회복세에 들어감. 최근 5년간('18~'22년) 연평균 성장률도 2022년 출고액 증가로 상승하는 추세임.
 - ▶ 최근 5년간 출고액 기준 맥주 1.8%, 희석식 소주 2.4%, 탁주 3.1%가 증가하였고, 과일주 5.6%, 청주 3.5%, 리큐르 6.9%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임. 반면 브랜드는 22.3%가 감소함.
- 한편 2030세대의 위스키 열풍으로 위스키 출고액은 최근 5년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증류식 소주로 이어져 동일 기간 증류식 소주의 출고액은 무려 43.5%가 상승함.
 - ▶ 코로나19 시기 '홈술' 문화가 자리잡고 프리미엄 주류에 대한 관심 고조로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소비가 증가함. 2022년 기준 위스키 출고액은 전년 대비 229.4%, 증류식 소주는 118.5% 증가함.
 - ▶ 증류식 소주와 함께 과일주와 탁주(막걸리) 등 전통주류 전통주류¹⁾의 성장세도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남.

1) 전통주류는 법률상의 전통주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의 전통주를 포함한 탁주, 약주, 청주, 과일주,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등 8개 주종을 의미하며, '전통주류' 혹은 '전통주 등'으로 표기함.

주종별 출고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연도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기타 주류	증류식 소주	과실주
2013	4,301,403	3,115,312	473,785	15,312	11,491	125,524
비중	51.6	37.4	5.7	0.2	0.1	1.5
2014	4,328,539	3,370,812	479,222	20,223	14,259	121,115
비중	50.2	39.1	5.6	0.2	0.2	1.4
2015	4,339,914	3,466,624	470,061	24,314	19,458	111,532
비중	49.0	39.1	5.3	0.3	0.2	1.3
2016	4,206,039	3,586,676	454,068	58,527	24,596	146,435
비중	47.7	40.7	5.2	0.7	0.3	1.7
2017	4,098,330	3,678,401	446,852	144,475	33,161	109,651
비중	46.8	42.0	5.1	1.7	0.4	1.3
2018	3,859,120	3,618,349	459,066	256,686	33,332	102,798
비중	45.1	42.3	5.4	3.0	0.4	1.2
2019	3,688,267	3,738,247	442,967	252,129	38,382	91,653
비중	43.6	44.2	5.2	3.0	0.5	1.1
2020	3,497,418	3,703,775	470,579	290,776	44,805	97,032
비중	42.2	44.6	5.7	3.5	0.5	1.2
2021	3,626,057	3,545,010	509,815	271,633	64,628	127,819
비중	43.3	42.4	6.1	3.2	0.8	1.5
2022	4,148,585	3,984,178	518,974	299,055	141,206	127,967
비중	43.7	42.0	5.5	3.2	1.5	1.3
GAGR ('18~'22)	1.8%	2.4%	3.1%	3.9%	43.5%	5.6%

연도	청주	약주	리큐르	위스키	일반 증류주	브랜드
2013	114,989	84,145	2,549	67,043	20,058	827
비중	1.4	1.0	0.0	0.8	0.2	0.0
2014	117,565	72,716	2,687	70,352	24,210	843
비중	1.4	0.8	0.0	0.8	0.3	0.0
2015	111,861	67,588	194,783	29,506	21,825	854
비중	1.3	0.8	2.2	0.3	0.2	0.0
2016	111,715	66,773	105,794	32,803	16,716	1,034
비중	1.3	0.8	1.2	0.4	0.2	0.0
2017	105,924	59,826	43,730	12,902	15,910	945
비중	1.2	0.7	0.5	0.1	0.2	0.0
2018	110,514	64,433	25,656	7,551	13,426	99
비중	1.3	0.8	0.3	0.1	0.2	0.0
2019	108,247	62,400	19,218	5,098	12,643	-14
비중	1.3	0.7	0.2	0.1	0.1	0.0
2020	106,264	53,916	15,962	4,039	10,916	-49
비중	1.3	0.6	0.2	0	0.1	0.0
2021	114,249	64,455	27,982	5,841	11,804	7
비중	1.4	0.8	0.3	0.1	0.1	0.0
2022	126,584	69,218	33,444	19,240	16,175	36
비중	1.3	0.7	0.4	0.2	0.2	0.0
GAGR ('18~'22)	3.5%	1.8%	6.9%	26.3%	4.8%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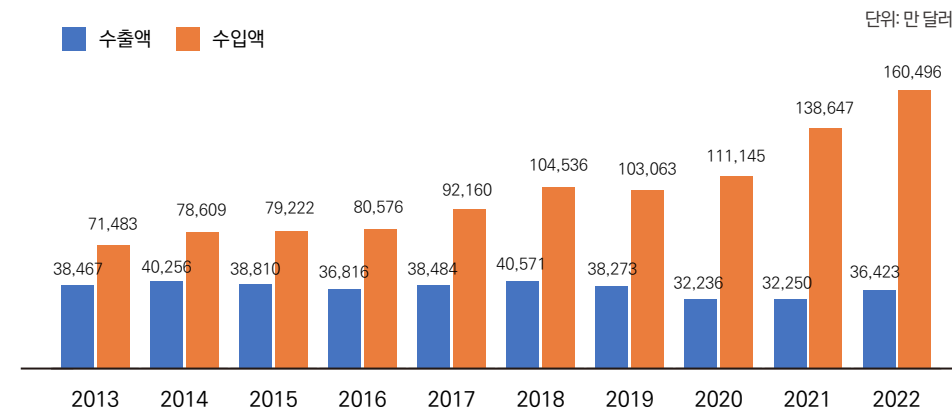
주: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국내 주류 수입액이 수출액의 4.4배, 주류 수출입 격차 확대

- 국내 주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억 6,423만 달러, 수입액은 위스키와 와인 등의 수요 증가로 16억 496만 달러 수준임.
 - ▶ 2013년 국내 주류 수입액과 수출액 간 격차는 1.9배 가량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2022년에는 격차가 약 4.4배로 확대됨.

주류 수출입액 추이



자료: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국내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²⁾ 시장규모는 2022년 출고액 기준 1,629억 원으로 전체 주류 출고액의 1.6% 차지

-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주류 출고액 9조 9,703억 원 중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전통주류의 출고액은 약 1조 3,326억 원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13.4%를 차지함.
- 한편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의 법적 전통주의 출고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 출고액이 전년 대비 73% 가량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세를 보임.
 - ▶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1년 기준 전통주가 처음으로 국내 전체 주류 출고액 대비 1% 이상을 기록하였고, 2022년 1.6%를 차지함.

- ▶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고, 혼술과 홈술로 대표되는 가정 내 주류소비가 증가함. 또한 주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전통주를 중심으로 판매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 특히, 국산원료를 사용하고, 지역의 독특한 특색을 가진 지역특산주의 출고액 증가가 크게 나타남. 2022년 지역특산주 출고액은 약 1,5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1% 상승하는 등 지역특산주의 성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전통주 출고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연도	주류 전체	전통주 등	법정 전통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2012	8,395,767	844,470	43,409	9,020	34,389
2013	8,811,704	847,853	48,576	9,773	38,803
2014	9,126,908	851,997	46,772	10,891	35,881
2015	9,361,633	1,021,422	40,882	10,335	30,547
2016	9,296,077	984,624	39,656	10,437	29,219
2017	9,243,659	959,529	40,029	10,307	29,722
2018	9,039,379	1,065,911	45,573	11,999	33,574
2019	8,941,277	1,027,639	53,128	12,167	40,961
2020	8,799,538	1,090,250	62,664	11,997	50,668
2021	8,834,539	1,192,385	94,149	10,973	83,176
2022	9,970,322	1,332,623	162,912	10,616	152,296
비중	100.0	13.4	1.6	0.1	1.5

주: 1) '전통주 등'은 국산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출고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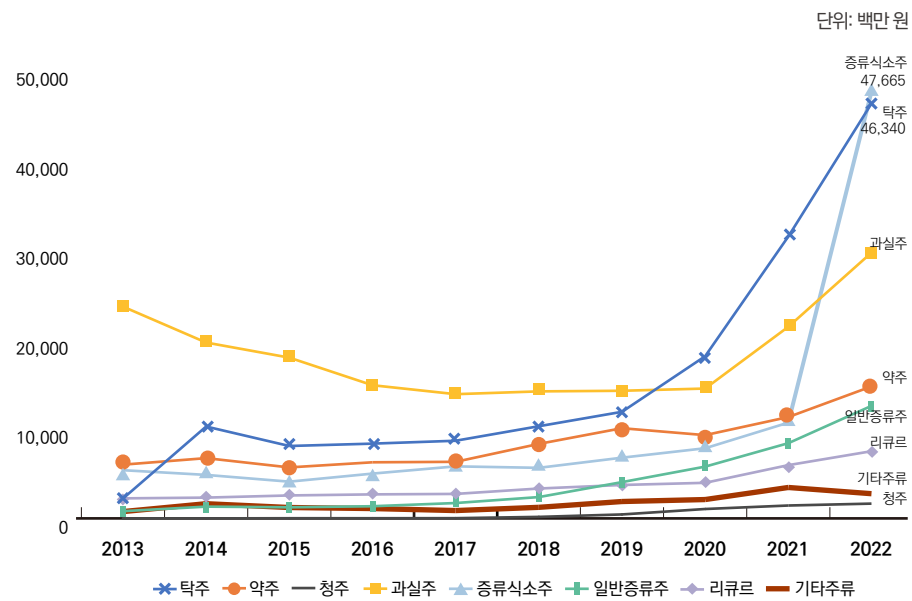
2) '법정 전통주'는 주류부문 기능보유자(무형문화재, 대한민국식품명인)가 제조한 술 또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2022년 출고액 기준 전통주 시장규모는 증류식 소주(29.3%), 탁주(28.4%), 과실주(18.2%), 약주(9.0%), 일반증류주(7.7%) 등의 순임.
 - ▶ 그동안 전통주 시장에서 탁주 출고액이 가장 많았으나, 2022년 처음으로 증류식 소주 출고액이 탁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 기간 동안 홈술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들이 기존 맥주와 희석식 소주 대신 독특한 맛과 향,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가진 증류식 소주를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2)법률상 전통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주세법」상 민속주(무형문화재, 식품명인)와 지역특산주를 의미함. 여기서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의 법률상 전통주를 의미함.

전통주의 주종별 출고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2022년 기준 전통주 제조면허³⁾ 업체수는 1,561개로, 전통주로 인증받은 경우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전통주 제조면허 발급을 희망하는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특산주 제조면허수가 최근 크게 증가함. 반면 전통주 중 민속주 면허 업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중임.

전통주 제조면허 추이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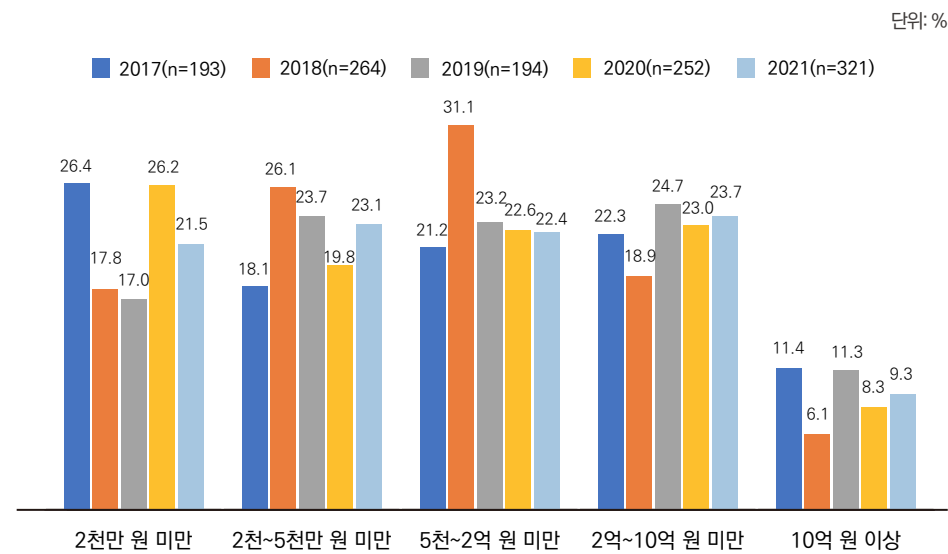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류 제조면허 업체	2,130	2,281	2,443	2,571	2,717	2,885
전통주 제조면허 업체	943	1,037	1,163	1,273	1,401	1,561
민속주	54	64	55	54	52	47
지역특산주	889	973	1,108	1,219	1,349	1,514
전체 주류 대비 전통주면허 비중	44.3	45.5	47.6	49.5	51.6	54.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전통주 산업은 2021년 기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가 90.7%, 종사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 80.9%로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

- 전통주 업체 매출액은 2억~10억 원 미만 업체(23.7%)가 가장 많았으며, 2천~5천만 원 미만(23.1%), 5천~2억 원 미만(22.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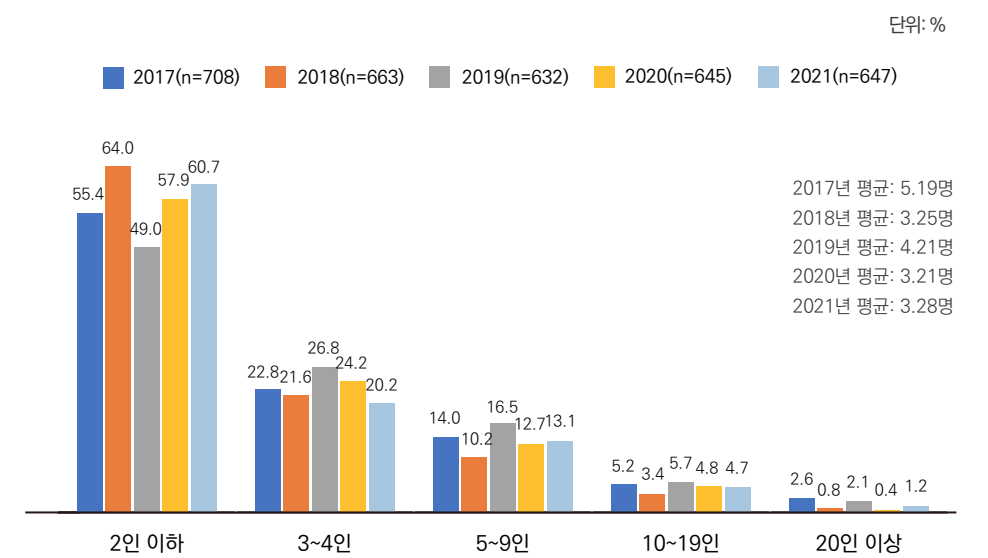
전통주 업체 매출액



자료: 2020·2021 주류산업 실태조사.

- 전통주 업체 중 종사자 수 2인 이하의 기업이 60.7%일 정도로 대부분의 전통주 업체들은 매우 영세하며, 평균 종사자 수는 2017년 5.19명에서 2021년 3.28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통주 업체 종사자 수 추이



자료: 2020·2021 주류산업 실태조사.

- 전통주류 수출액은 약 2,500만 달러로 2018년 이후 5년간 8.7%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특히, 코로나19가 극성이었던 2019년 이후 수출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전통주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함. 탁주의 수출액이 1,568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과주 353만 달러, 기타 과실주 346만 달러 등의 순임.
 - 전통주류 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탁주의 주요 수출국으로 일본 7.6백만 달러, 미국 2.6백만 달러, 중국 1.2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음.

전통주류 수출액 추이

단위: 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통주류 수출액	1,727	1,766	1,736	1,822	2,352	2,466
탁주 수출액	1,225	1,241	1,219	1,246	1,580	1,568
전통주류 대비 탁주 비중	70.9	70.3	70.2	68.4	67.2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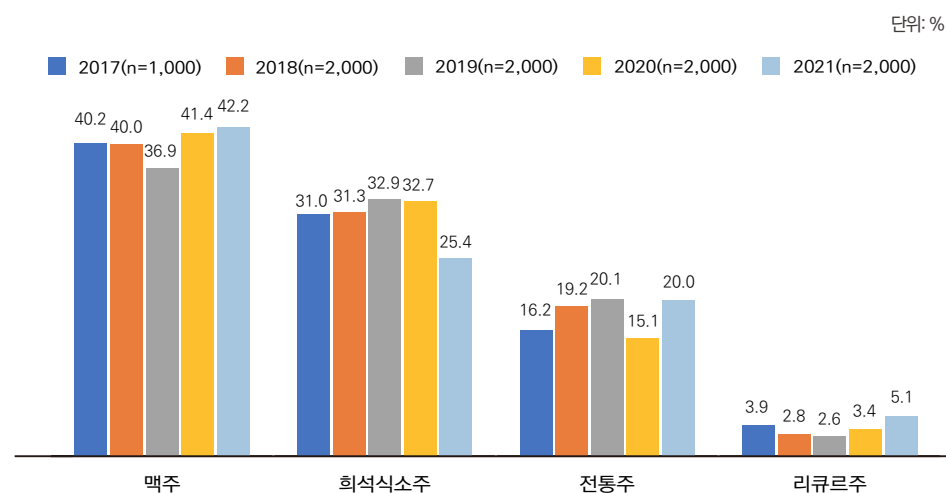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3) 전통주 생산 부문 통계는 전통주 등이 아닌 전통주 제조 면허(주세법 상의 전통주) 기준임.

코로나19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음주에 대한 인식 변화, 전통주가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가 찾는 매력적인 술로 변모 중

- 과거 ‘회식이나 단체 중심의 취할 때까지 마시는 문화’에서 최근 ‘나에게 맞는 술, 즐길 수 있는 술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술을 찾아 마시는 가치소비 문화’가 자리 잡았고, 자연스럽게 전통주의 소비 증대와 연결됨.
 - 젊은 층의 새로운 소비 취향에 맞추어 연예인 등의 전통주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매일 새롭고 트렌디한 전통주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전통주의 낡은 이미지 개선
 - ‘찾아가는 양조장’, 공방 체험, 미디어, 전통주점 등 이전에 비해 전통주를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 박재범 원소주, 백종원 막걸리 등 연예인이 직접 제작·홍보하는 전통주가 주목
- 전통주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편의점, 대형마트, 전통주 보틀샵 등 전통주 취급 및 진열존이 확대되어 소비자들과의 접근성이 개선이 이뤄짐.
 - 전통주 보틀샵 개수는 2019년 10개에서 2022년 120여 개로 증가
 - 미술관·술담화·우리술한잔·퍼플독·술을읽다 등 정기구독 업체 등장이 보다 쉽고 새롭게 다양한 전통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

월 평균 주종별 음주 비중



자료: 2021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트렌디한 증류식 소주 제품 예시

구분	중저도주			고도주
	원소주	토끼소주 화이트	독도소주 블랙	부자진 서울
제품 이미지				
도수	22도	23도	17.3도	44도
가격	14,900원	24,000원	3,500원	30,000
용량	375mL	375mL	375mL	200mL
원재료	토토미쌀	참쌀	쌀, 해양심층수	증주니퍼베리, 솔잎, 헛개, 쑥, 한라봉 등
출시일	2022년 2월	2016년	2021년 3월	2020년 4월
제조방법	감압식 증류법 제조 후, 용기에서 2주 숙성	참쌀가루를 내서 범벅으로 덧술을 빚음	감압식 증류법 제조	증류 후 5주 숙성

자료: 원소주, 토끼소주, 독도소주, 부자진 각 홈페이지; FOOD TREND 2023 푸드 트렌드 재구성.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조되는 현상으로 나타남

- 최근 K-POP과 K-culture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가 한식과 전통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K-POP의 인기에 힘입어 김밥(Kimbap)과 떡볶이(Tteok-bokki) 등 한식이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한식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한식에 어울리는 술에까지 이어짐.
 - 이전까지 전통주는 해외 교민 대상으로 교민이 많은 일본과 미국 등 국가에 소량을 수출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최근 K-POP과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일본·동남아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증가함.
- 아울러 국내에서 전통주를 경험했거나, 전통주 양조 교육을 받은 해외교포나 외국인들이 해외 현지에 전통주 양조장을 설립하고, 막걸리와 증류식소주 등의 전통주류를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함.
 - 미국 해외교포 1.5세대가 만든 ‘마쿠(Makku)’는 한국에서 OEM 형태로 생산되며, 2019년 출시 이후 2021년까지 미국 22개 주에서 약 100만 캔 이상 판매실적 달성함.
 - ‘하나 막걸리’는 미국 해외교포가 국내 전통주 양조교육을 이수한 후 브루클린 양조장에서 유기농 쌀과 누룩을 이용한 전통적인 양조법으로 직접 양조한 막걸리를 판매

- 아직까지 해외의 전통주 양조장 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이들 양조장에서 판매하는 전통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이 국내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주를 직접 만들고 마시다 현지 양조장을 만들어 상품화 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전통주의 세계화와 연계한 아주 긍정적인 사례로 바라볼 수 있음.

해외 양조장에서 생산된 막걸리 사례

구분	메종드막걸리 (MASON de MDAKOLI)	하나막걸리 (Hana Makgeolli)	건배막걸리 (GeonBae Makgeolli)	마쿠 (Makku)
제품 이미지				
생산국가	프랑스	미국	캐나다	미국(한국OEM)
특징	프랑스 최초 막걸리 양조장에서 쌀, 누룩, 물을 이용하여 빚은 프랑스 천연막걸리	브루클린 양조장에서 캘리포니아 맥스웰과 광주산 쌀, 누룩, 누룩 수돗물을 이용하여 빚은 미국 막걸리	생산자가 한국 전통 막걸리 제조법을 배워 빚은 캐나다 퀘벡 막걸리	현지인을 겨냥한 브랜드로 한국내 OEM 제조 막걸리로 맥주 대신 마실 수 있는 술임을 강조한 캔 막걸리

자료: FOOD TREND 2023 푸드 트렌드 재구성.

전통주 산업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증류식 소주, 막걸리, 과실주 등 전통주에 대한 상당한 관심 고조로 전통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전통주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전통주 교육 이수 후 전통주 면허취득과 양조장 혹은 마케팅 업체 창업 등의 전통주 산업으로의 진입이 이어지는 등 전통주 산업은 이전에 없던 확장일로에 있으며, 당분간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전통주 중에서도 지역특산주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됨. 일반 주류에 비해 시설과 장비 등에서 진입장벽이 낮고,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은 경우 주세 경감과 통신판매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특산주에 관심은 다른 주종에 비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지역특산주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지역특산물 제조면허 수는 2020년 기준 1,219개에서 2021년 1,349개, 2022년에 1,514개로 크게 증가하는 등 현재 전통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지역특산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 ▶ 지역특산물 중 탁주 면허를 받은 업체수는 2020년 194개에서 2022년 287개로 48% 증가하였고, 증류식 소주 제조업체수는 2020년 104개에서 2022년 147개로 41% 증가함.
- ▶ 다만, 지역특산물 면허를 받은 소규모 양조장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지역 농산물 원료로 이용해야 하는 만큼 대형 양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가부담이 큰 편임. 따라서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된 전통주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품질과 새로운 시도, 그리고 감각적 디자인 및 홍보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전체 주류시장에서 전통주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겨우 1.6% 수준에 불과한 매우 작은 시장임. 전통주류까지 포함해야 13.4% 수준에 이룸. 수많은 젊은 인력들이 새롭게 전통주 산업으로 투입되고, 매일 감각적인 전통주 브랜드와 제품들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규모는 기대보다 작은 수준임.
 - ▶ 최근 전통주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함. 전통주의 인기를 앞세워 전통주 양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이 단기간의 양조 교육 이수와 경험을 토대로 양조장을 창업 후 저품질의 전통주를 생산한다거나, 홍보·마케팅에만 집중한 수준 미달의 제품들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급격한 산업성장의 폐해가 일부 나타남.
 - ▶ 지속적인 전통주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을 위한 부단한 제품 및 기술개발·품질관리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균형감 있는 전통주 산업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음.
 - ▶ 전통주 시장이 작은 만큼 작은 관리실수들이 계속 쌓이면 전체 전통주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일례로 2009년 한류붐으로 시작된 국내·외 막걸리 열풍의 빠른 퇴장은 일본의 수요감소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제한된 시장에 많은 업체들이 몰려 출혈경쟁이 이뤄짐에 따라 저급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불과 2~3년 만에 빠르게 막을 내렸음.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양적성장 외에 질적 성장에 대한 노력이 산업계는 물론 정부의 정책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전통주 산업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전통주 산업발전의 최우선 개선과제는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임.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법령상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지역특산물 기준이 불분명하여 소비자,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 전통주 산업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을 위한 법개정 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 주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함. 국산 농산물 이용 시 각종 정부 지원사업평가에서 가점 부여, 가공설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산원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와 한식과 외식업체 등과의 연계 강화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전통주 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신규 사업자를 위한 품질 관리·경영 컨설팅 등 전문 교육시스템 구축과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등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질 주류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및 소비촉진 활성화가 필요함. 아울러 지역 대표 문화·관광 상품 및 농업·농촌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krei/index.do>

저자정보

- ▶ 김창호 전문연구원(061-820-2288), chkim@krei.re.kr